

그 옛날 '대학바다', 지금은 '시름바다'

[발로 달는 잠녀의 삶] 남원읍 태흥 1리

등록 : 2007년 03월 25일 (일) 17:23:31
최종수정 : 2007년 03월 25일 (일) 17:23:31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바다는 물에 비해 한 계절이 늦다고 했다. 봄기운이 만연하다 화사한 색깔로 옷을 갈아 입을 때도 바다에는 아직 남은 찬바람이 분다.

'따뜻한 남쪽 바다'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안고 찾아간 남원읍 태흥1리 잠녀들에게 봄기운은 아직 먼 듯 보인다. 낙낙한 웃음은 간데 없고 허영게 바닥을 드러내는 바다처럼 여유없어 보이는 표정들이 바닷속 사정을 대신하는 듯 했다.

△이제는 사라진 '대학바다'

들렁머리 얻이나 새숫개는 전복이나 소라가 풍성했던 바다였다. 지금은 깊은 바다에나 들어가야 겨우 찾아볼 수 있을까 옛 기억만 더듬어서는 가쁜 숨만 몰아쉴 뿐 두 손을 채우기도 버거울 정도다.

30년 넘게 물에서 작업을 했다는 김미자씨(68)의 목소리가 뾰족하다. "뭐가 나야 말이지. 바다는 허영게 변했지 종패는 뿌려봐야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물에 들어가도 별이가 시원치 않아".

속만 허영게 아니라 그날따라 파도까지 세서 삼삼오오 모여든 잠녀들은 물질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예전에는 물질해서 아이들 대학까지 다 시켰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내뱉듯 쏟아내는 말은 그대로 지금 잠수들의 현실이나 마찬가지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발일도 힘들고 그렇다고 바다에 물건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물에 잘 들지 않는다"며 "깊은 바다 작업이야 상군 몇몇이나 하지 나머지는 그것마저도 힘들다"고 한숨이다.

태흥1리의 잠녀는 20명이 채 안된다. 상시해녀라고 해도 17명 안팎. 이중 14명이 60대고 70대도 4명이나 된다. "말이 좋아 60대지 다 60대 후반에, 76살에 물에 드는 해녀도 있다"고 했다.

잠녀들이 고령화되면서 작업도 3물에서 9물까지, 한달이면 18일을 겨우 채울 정도다.

△2개의 건천, 계속되는 바다 생채기

인근 태흥2리에서 종패사업이 잘 되는 것과 달리 옆바다 태흥1리는 가물때로 가물었다. "같은 바다처럼 보여도 물흐름이 다르다"는게 잠녀들의 설명이다.

태흥1리에 있는 두 개의 다리, 태흥교와 남태교 아래 건천을 타고 유입되는 담수로 바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취재 당일 태흥교에는 어김없이 흙탕물이 유입되고 있었다. 주변에는 공사장이 눈에 띄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가 자주 있다고 했다. 맑은 날도 이정도니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내리면 사정은 더 심각해진다. 건천인 남태교 역시 집중호우 등으로 물이 흐르게 되면 고스란히 바다행(行)이다.

따뜻했던 겨울 역시 잠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잘하는 잠녀는 한번 작업에 10kg는 거뜬히 작업한다는 해삼 역시 올해는 찾기 힘들었다.

“눈이 와야 해삼이 나지, 올해는 눈도 거의 안 내리고 해삼도 안났다”는 노잠녀의 푸념이 바다위로 쏟아진다.

‘발로 밟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남원읍 태흥2리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